

## 아버지 애착의 세대간 전이 : 탐색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옥 정

방 희 정\*

서울사이버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애착표상이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안정성으로 세대간 전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아버지 탐색민감성이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정의 아버지와 24개월 유아 57쌍을 대상으로, 성인애착면접(AAI), 낯선상황절차(SSP)를 실시하여 아버지 애착표상과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안정성 유형을 분류하였고, 아버지의 탐색민감성 평정을 위해 10분의 놀이회기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애착표상은 자율형이 63.2%로 가장 많았으며, 무시형 19.3%, 몰입형 12.2%, 미해결형 5.3%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안정성은 안정형이 64.9%, 불안-회피형 15.8%, 불안-저항형이 15.8%, 비조직형이 3.5%로 나타났다. 둘째, 아버지 애착표상과 유아의 애착안정성 유형을 4범주 분류시 유형간 일치율은 58%로  $\chi^2$ 검증 결과 유의하지 않았으나, 3범주와 2범주 분류시 일치율은 64.9%, 66.7%로 모두  $\chi^2$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이는 아버지 애착의 세대간 전이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셋째, 아버지 탐색민감성을 통제했을 때 유아의 애착안정성에 대한 아버지 애착표상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아버지 탐색민감성이 아버지 애착표상과 유아의 애착안정성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아버지 애착, 탐색민감성, 아버지 애착표상, 유아의 애착안정성, 애착의 세대간 전이

자녀양육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엄부자모”를 이상화된 부모상으로 보아온 우리나라의 경우, 양

\* 이 논문은 2011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교신저자: 방희정, E-mail: hjbang@ewha.ac.kr

육문제와 관련된 아버지 역할은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극단적인 진화론적 입장에 의하면 “아버지는 종족번식을 위하여 생물학적으로 필요할 뿐이다”라고까지 기술된 바 있다. 서구에서도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가정에서의 아버지는 “아동 발달에서 잊혀진 기여자(Lamb, 1975)”로 묘사되었을 정도로, 양육에 관한 아버지는 영아와 걸음마기 자녀의 정서 사회적 발달에 미미한 역할을 하는 생물학적 필수요인 정도로만 간주되었다(Parke, 1990).

1970년대 중후반부터 자녀발달에 기여하는 아버지에 대한 연구들이 앞다투어 발표되었으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아버지의 간접적인 영향력을 검증하면서 아버지를 어머니에 대한 정서적 물리적 지원자 내지는 어머니보다 위계적으로 하위에 있는 2차적인 애착대상으로 제한된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Fonagy, Steele, & Steele, 1991; Goossens & van IJzendoorn, 1990; Steele, Steele, & Fonagy, 1996). 특히 애착 연구에서는 발달시기 상 영아기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지며 영아기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연구 흐름이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애착 연구는 사회구조 및 인식의 변화에 맞춰 어머니 중심연구에서 탈피하여 아버지, 대리양육자 등 다양한 애착인물을 포함하여 아동의 발달과 관련성을 보고자 하는 연구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Bernier & Miljkovitch, 2009; Bretherton, 2010). 또한 아버지의 관여가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영역 전반에 걸쳐 자녀의 성공적인 적응을 직접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제안하고, 나아가 아버지 역할이 기존의 어머니 중심의 애착이론이 갖는 한계점까지도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Brown, McBride, Shin, & Bost, 2007; Grossmann,

Grossmann, Fremmer-Bombik, Kindler, Schuererer-English, & Zimmermann, 2002; Verschueren & Marcoen, 1999).

애착 이론에 기반한 아버지 애착 연구는 크게 4기의 패러다임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Bretherton, 2010). 제 1기는 어머니 중심의 애착 연구에서 아버지가 과연 애착대상이 될 수 있는지, 만약 애착대상이라면 어머니에 비해 2차적 역할을 하는지, 동일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Ainsworth(1963, 1967)는 영아가 어머니 외에 아버지, 할머니, 형제자매를 비롯한 다른 대상들에게도 애착 행동을 나타냄을 밝혀냈다. 또한 7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들에서도 아버지가 영아의 애착대상으로 기능함을 보고하였다(Lamb, 1977; Main & Weston, 1981). 그러나 이 시기에 진행된 연구들의 경우 대부분 애착대상으로서의 아버지 역할에 대한 증거는 얻었으나, 어머니와 대비된 아버지 애착의 지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제공해주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제 2기는 낯선 상황 절차(Strange Situation Procedure: SSP)가 개발되면서, 어머니와 비교하여 아버지의 애착위계상 위치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었다. Lamb(1976)은 실험실 에피소드에서 영아가 스트레스가 없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아버지를,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어머니를 애착대상이자 제후행동의 수용자로서 더 선호함을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7~13개월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 비구조화된 가정 관찰 연구에서도 어머니는 양육 제공자로서, 아버지는 놀이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amb, 1997). 연구 결과들이 누적되면서 영아가 아버지, 어머니와 형성하는 관계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며 향후 아버지-영아 관계가 미치는 독특한 발달적 영향을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제 3기에서는 영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안정성은 어머니와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어머니와 맺은 초기 애착 관계가 이후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Ainsworth(1967)의 주장과는 달리, 어머니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많은 영아들이 아버지와는 안정 애착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성인의 아동기 애착경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성인애착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 AAI)을 기반으로 애착 관계의 세대간 전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Main, Kaplan과 Cassidy(1985)는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애착표상 유형이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안정성 유형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이후 아버지를 포함한 애착의 세대간 전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제 4기에는 영아기부터 초기 성인기까지 누적된 중단 연구결과들이 발표되며 부모의 애착표상과 영유아기 애착안정성이 이후 발달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되었다. 특히 애착관계의 가족관점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van IJzendoorn, Sagi와 Lambermon(1992)은 다중애착모형(multiple attachment model)을 제안하였고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대리양육자간 애착 관계가 아동의 이후 발달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들로 이어졌다.

아버지 애착표상과 관련하여 Bakermans-Kranenburg와 van IJzendoorn(2009)은 25여년간 10,00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AAI 연구결과들을 메타분석하였다. 비임상군 어머니의 사례분석에 근거해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3범주 분류의 경우 자율형이 58%, 무시형이 23%, 몰입형이 19%로, 4범주의 경우 자율형이 56%, 무시형이 16%, 몰입형이 9%, 미해결형이 18%로 분포되었다. 그

에 비해 아버지들의 AAI 유형은 3범주 분류시 자율형이 58%, 무시형이 28%, 몰입형이 15%이며, 4범주 분류시 자율형이 51%, 무시형이 24%, 몰입형이 11%, 미해결형이 15%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AAI를 사용한 성인애착연구는 대부분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우복례, 2003; 이경숙, 신의진, 김혜연, 1999; 이미선, 이경숙, 박진아, 신의진, 2008; 장미자, 1998; 최해훈, 1997). 그 외에도 위험집단의 청소년 대상의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으나(이경숙, 엄혜련, 정영운, 2004; 정미현, 2010),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영유아의 애착안정성을 분석한 Ainsworth, Blehar, Waters와 Wall(1978)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애착안정성 분포가 안정형이 66%, 불안-회피형이 22%, 불안-저항형이 12%로 분포되었다. 이에 비해 아버지에 대한 유아의 애착안정성에서는 안정형이 64%, 불안-회피형이 31%, 불안-저항형이 5%로 어머니에 비해 불안-회피형이 더 높게 나타났다(Goossen & van IJzendoorn, 1990). Belsky와 Rovine(1988)과 Owen, Easterbrooks, Chase-Lansdale, & Goldberg(1984)연구에서는 안정형이 73~77%, 불안-회피형이 14~16%, 불안-저항형이 13~14%로 두가지 불안정 유형간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SSP를 사용한 아버지에 대한 애착안정성 연구로는 이영환(1993) 연구가 유일하는데, 안정형이 48%, 불안-회피형이 38%, 불안-저항형이 14%로 보고되었다. 이는 국외 연구 결과에 비해 안정형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고 불안-회피형의 비율에 높게 나타난 결과로, 어머니와 상호작용이 지배적인 영아기에 보이는 전통적인 아버지 역할 행동에 따른 결과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이영환

(1993) 연구에서는 애착행동체계를 가장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양육자와 낯선이와 분리되어 영아 혼자 남겨지는 에피소드(에피소드 6)를 생략함으로써 표준적 SSP 패러다임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다른 선행연구들과 직접 비교가 가능한 표준적 SSP를 사용하여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안정성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애착표상의 세대간 전이는 내적 작동모형(Bowlby, 1982)을 통해 부모의 아동기 경험이 이후 부모로서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며, 실제 많은 연구에서 부모의 아동기 때 형성된 내적 작동모형에 의한 애착표상이 세대간 전이를 이루어 자녀의 애착유형과 일치함이 밝혀졌다(Bretherton, Ridgeway, & Cassidy, 1990; Fonagy et al., 1991; Main et al., 1985). van IJzendoorn (1995)이 656쌍의 어머니-아동, 198쌍의 아버지-아동간의 세대간 전이를 메타 분석한 결과, 부모의 애착표상과 자녀의 애착안정성을 안정형과 불안정형의 2범주로 나누었을 때 일치율은 75%, 3범주 일치율은 70%, 4범주 일치율은 63%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아버지대상 연구를 각각 나누어 보았을 때, 아버지 애착표상과 아동의 애착안정성간 일치율( $r=.37$ )이 어머니 애착표상과 아동의 애착안정성간 일치율( $r=.50$ )이 보다 약하게 나타났다. 물론 아버지-아동간 세대간 전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어머니의 영향력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약하게 보고되었다.

van IJzendoorn(1995)은 아버지의 자녀애착형성에 대한 영향력이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난 것에 대해 두가지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낯선상황절차가 영아-어머니관계를 기반으로 개발 타당화 되었으므로, 영아-아버지 관계의 본질적 특성을 적절히 담지 못할 가능성이 있

다는 것이다. 둘째 서구 산업화된 사회에서도 생계부양과 양육의 구분이 편향되어 있어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들은 자녀를 돌보는 일에 적게 참여하고 책임감도 약하다. 따라서 아버지와 자녀간 상호작용 빈도나 강도가 약하므로, 아버지의 애착표상이 자녀의 애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다는 것이다.

한편 Miljkovitch, Pierrehumbert, Bretherton과 Halfon(2004)이 스위스 가정을 대상으로 한 성인 애착면접 연구에서 어머니의 애착표상과 유아의 애착유형은 일치하였으나, 아버지의 애착유형과 유아의 애착유형은 일치하지 않았다. 하지만 후속 연구로 아버지만이 주양육자로 기능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아버지의 애착표상과 4-6세 아동의 애착표상간 일치도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 애착의 세대간 전이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Bernier & Miljkovitch, 2009). 즉 아버지와와의 상호작용이 더 긴밀해지는 유아기 이후, 아버지의 역할이 커지는 양육환경일 경우 어머니처럼 아버지 애착표상 역시 다음 세대로 전이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버지를 대상으로 애착의 세대간 전이를 탐색한 국내 연구로는 채진영(2009)이 아버지의 원어머니에 대한 표상과 남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표상 간 세대간 전이를 보였다는 결과가 거의 유일하다. 채진영(2009)은 성인애착척도(Hazan & Shaver, 1992)를 통해 원부모와의 애착표상을 측정하였고, 이야기 완성과제(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ASCT)로 5세 아동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표상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더 어린 연령의 유아와 그 아버지를 대상으로 포괄적 애착실험방법인 AAI와 SSP를 사용한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된다.

애착의 세대간 전이 연구들에서는 부모의 애착

표상과 자녀의 애착안정성 간에 연관은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매개될 것이라 가정하였다 (Pederson, Greg, Moran, & Bento, 1998). 애착의 세대간 전이 기제 내 매개요인으로 가정되는 상호작용 변인으로는 양육자의 민감성(sensitivity)이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아버지 애착의 세대간 전이 연구의 경우, 기존의 어머니 대상 연구에서 주로 시행된 양육민감성 평정으로는 부의 애착표상과 자녀의 애착안정성간 유의한 관계성을 설명해주지 못하였다(Belsky, 1983; Grossmann & Grossmann, 1992; Volling & Belsky, 1992). 반면 Goossens와 van IJzendoorn(1990) 연구에서 아버지-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자유놀이 상황에서 평정된 아버지의 민감한 상호작용 행동은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안정성과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놀이상황에서 평정된 어머니의 민감한 상호작용 행동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안정성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어머니의 애착표상이 세대간 전이되는 과정에는 양육민감성이 매개하나, 아버지 애착표상의 세대간 전이과정에서는 놀이상황에서의 민감한 상호작용행동이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함의를 지닌다.

이처럼 아버지의 역할은 어머니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영역으로 놀이와 같은 탐색상황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져 왔다(MacDonald & Parke, 1984; Parke, 1990). 아버지들은 어머니보다 신체적으로 더 자극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혹은 “특이한” 놀이를 하는 경향이 있으며(Lamb, 1976, 1977), 아버지들은 좀 더 신나는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고, 영아들 역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더 흥분한다(Yogman, 1994). 애착 상황에서도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안정 애착이 아동이 고통을 받는 상황이 되었을 때 생리사회적인 수준을 포함한 편안함

과 휴식을 제공하지만(Spangler & Grossmann, 1993), 이와는 달리 아버지는 아동의 탐색 체계가 각성되었을 때 아동을 관찰하고 흥분을 제어하며 민감하고 격려적인 지지를 통해 아동에게 안정감을 제공한다(Grossmann et al., 2002).

Lamb, Pleck, Charnov과 Levine(1985)은 신체적인 아버지-아동 놀이가 아동이 아버지와의 애착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기여자라고 보았다. 아동이 아버지와 함께 노는 시간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며(Schwartzman, 1986), 특히 높은 강도의 신체적 놀이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아동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적은 상황에서도 아동이 아버지에게 대한 강한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Palmer, 1993). 또한 아동과 함께 하는 아버지의 상호작용놀이, 활기참(animation), 아버지 활동과 같은 변인들은 모두 아동 애착 안정성에 있어 아버지 효과의 크기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ox, Owen, Henderson, & Margand, 1992).

Grossmann 등(2002)은 탐색적 놀이상황에서 두드러진 아버지-영유아간 상호작용의 독특성을 고려하여 ‘탐색민감성’ 개념을 제안하였다. 즉 어머니가 자녀의 안정적 애착을 조성한다면 아버지는 안정적 탐색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동 발달에 있어서 서로 구별되지만 대등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탐색민감성’이란 안정적 탐색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더 성숙한 방식으로 놀이하도록 도전을 격려하고, 동기화가 유지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우며, 탐색하고 제안할 때 아동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Grossmann 등(2002)이 제안한 탐색민감성을 탐색상황에서 양육자가 보이는 아동 신호에 대한 민감한 반응, 정서적 지지, 새로운 탐색 격려, 침입적이지 않은 적절한 지도 및 발판화 등의 행동이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전

어머니 중심의 애착연구에서 사용되던 양육민감성과는 다른 개념적 구인으로, 아버지-영유아간 상호작용의 독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Grossmann 등(2002)의 중단 연구에 의하면, 2세 자녀와의 놀이상황에서 관찰된 아버지의 탐색민감성이 이후 자녀가 10세, 16세가 되었을 때 계속해서 그들의 애착표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탐색민감성이 아동의 애착 안정성에 기여했으며, 아동기와 청소년기 애착표상의 중요한 예측인자로 밝혀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애착이론에 기반하여 아버지가 자녀의 애착안정성에 기여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아버지의 개입이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맞벌이 가정의 아버지와 유아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2세 전후의 유아는 환경에 대한 탐색이 활발해지는 시기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발달적 시기이며, 맞벌이 가정의 특성상 아버지의 관여가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2세 전후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아버지의 애착표상과 유아의 애착안정성을 파악하여 그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아버지의 애착표상 유형이 유아의 애착안정성 유형으로 세대간 전이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셋째, 아버지의 애착 표상이 유아의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즉 애착의 세대간 전이 과정에서 아버지 탐색민감성의 매개효과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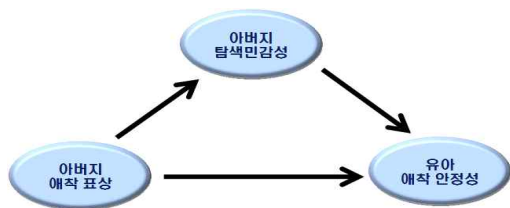


그림 1. 아버지 애착의 세대간 전이에서 아버지 탐색민감성의 매개효과모형

색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연구 모형은 그림 1에 제시되었다.

## 방법

###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정의 24개월 유아와 아버지 62쌍이다. 연구 대상은 서울지역 8개소 어린이집에서 모집된 지원자 48쌍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지원자 14쌍으로 구성되었다. 총 62사례 중 1차 실험 후 3사례가 중도탈락 하였다. 그리고 2사례가 낮선상황절차(SSP)로 평정한 유아의 애착안정성이 분류불가(Cannot Classify: CC)로 분류되어, 최종분석에는 57사례만 포함되었다.

57쌍의 유아 가운데 남아 26명, 여아 31명이며, 평균 개월수는 남아 24.6개월(SD=1.58), 여아 24.4개월(SD=1.29)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의 연령은 절반 이상(52.7%)이 36~40세였고, 학력 수준은 89.5%가 4년제 대졸이상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교육수준을 보였다. 또한 직업군별로는 75.4%가 공무원, 회사원 등 사무직에 해당하며, 12.3%가 전문직 및 고위관리직이었다. 배우자의 소득을 제외한 아버지의 소득수준은 70.2%가 200~400만원 이내에 포함되어 있다. 교육수준, 직업군,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상 정도로 파악된다.

### 측정 도구

####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안정성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Ainsworth와 Wittig(1969)가 개발한 낯선상황 절차(Strange Situation Procedure, SSP)를 사용하였다. 낯선상황 절차는 총 8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고, 각각의 에피소드는 실험절차가 진행될 수록 영유아가 받는 스트레스의 양이 점차 증가하도록 구성하여 스트레스 상황에서 영유아가 애착대상을 향해 어떻게 행동을 조직화하는지 관찰할 수 있다.

애착유형의 분류는 두 가지 단계에 걸친 평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2회의 재결합 에피소드(에피소드 5와 8)에서 유아가 보인 아버지에 대한 상호작용 행동지표가 되는 4개의 변인-접근과 접촉추구행동, 접촉유지 행동, 회피행동, 저항 행동을 각각 7점 척도로 채점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유아와 아버지와의 상호작용 행동 4개의 변인에 대한 평정을 근거로 하여 Ainsworth 등(1978)의 애착안정성 유형분류 준거와 Main과 Solomon(1990)의 비조직 유형에 대한 지표에 따라 유아의 애착유형을 4가지 유형, 즉 안정형(secure, B), 불안-회피형(insecure-avoidant, A), 불안-저항형(insecure-resistant, C), 비조직형(disorganized, D)으로 분류하였다.

애착안정성 유형 분류는 낯선상황절차 워크샵을 이수한 발달심리전공 박사과정생 2인과 연구자가 함께 녹화한 테이프를 반복 관찰하면서 평정점수가 일치하도록 훈련하였다. 총 57개의 사례 중 23개 사례를 발달심리전공 박사과정생 1인과 연구자가 함께 평정한 결과 유형분류 일치율이 87%( $\kappa = .77, p < .001$ )이었다. 12사례는 다른 박사과정생 1인과 연구자가 평정한 결과, 83%( $\kappa = .71, p < .01$ )의 일치율을 보였다. 평정자간 애착 유형분류가 일치하지 않았던 5개의 사례에 대해서는 재논의를 통해 분류되었다.

### 아버지의 애착표상

Main 등(1985)이 개발한 성인애착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 AAI)은 애착과 관련된 성인의 내적 작동모형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반구조화된 면접법이다. 아동기(5세~12세)에 각 부모와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5개의 행동사와 관련된 특정 기억들, 부모로부터 거절 및 거부경험, 위협당한 경험, 상실경험, 학대경험, 부모와의 과거 경험이 현재 성격형성에 미친 영향, 현재 부모와의 관계 등에 대한 질문이 순차적으로 제시되어 그 경험을 어떻게 표상하고 있는가에 따라 각기 다른 언어적 특징을 보이게 된다.

성인애착표상의 분류 역시 2단계 평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첫번째 단계로 성인애착면접의 전사본에 나타난 경험의 내용과 각기 다른 언어적 특징을 근거로 하여 경험 척도(애정적, 거부적, 관여적/역할전도적, 성취에 대한 압력, 방임적), 마음상태 척도(각 부모에 대한 마음상태, 전반적 마음상태)에 대해 9점척도로 채점한다(Main, Goldwyn, & Hesse, 2002). 두번째 단계는 전반적인 애착표상의 유형 분류 절차로, Grice(1975)의 응집력 있는 담화의 네 가지 요건에 따라 자율형(autonomous, F), 무시형(dismissing, Ds), 몰입형(preoccupied, E), 미해결형(unresolved, U/d) 4가지로 분류하였다(Main et al., 2002).

애착표상의 유형분류는 성인애착면접 워크샵을 이수한 발달심리전공 박사과정생 1인, 석사과정생 1인과 연구자가 함께 녹취전사본을 읽고 평정점수가 일치하도록 훈련하였다. 총 57개의 AAI 사례 중 16사례는 발달심리전공 박사과정 1인과 연구자가, 14사례는 발달심리전공 석사과정 1인과 연구자가 평정한 결과, 유형 분류에서 각각 94%( $\kappa = .68, p < .001$ ), 86%( $\kappa = .65, p < .01$ )의 일치율을 보였다. 그중 애착 유형분류가 일치하지 않았던 4

사례에 대해서는 재논의를 통해 분류되었다.

유의도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 아버지의 탐색민감성

아버지의 탐색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Kassubek(1995)이 개발한 '민감하고 격려적인 상호작용 놀이척도'(Sensitive and Challenging Interactive Play Scale; SCIP scale)를 사용하였다. SCIP척도는 부모-결혼마기 유아의 비구조화된 놀이 상호작용을 위해 고안된 척도로, a) 영아의 애착 행동 체계가 활성화되지 않고, 영아가 협력(partnership)-놀이 속에서 자율성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b) 옳고 틀린 답이나 분명한 해결책이 없어, 모델링, 발판화(scaffolding),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방식의 놀이재료를 제공할 때 적용된다. 즉 SCIP척도는 Ainsworth의 중요개념인 민감성, 협력, 수용을 기반으로 하되, 부모의 행동들이 아동의 탐색행동체계의 각성과 기능에 적절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게 된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탐색민감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10분간 아버지와 유아의 놀이회기가 진행되었다. 놀이재료로 6가지 색깔의 고무찰흙을 제공하며 아버지에게 평상시와 같이 아동과 놀이해달라는 구두지시가 이루어졌다. 녹화된 놀이회기를 발달심리전공 석사과정 2인과 연구자가 함께 평정하였는데, 평정자간 신뢰도는 각각 .91, .92로

### 연구절차

본 실험에 앞서 아버지에게 대한 유아의 애착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한 예비연구로 맞벌이 가정의 24개월 유아와 아버지 5쌍을 대상으로 낮선상황 절차, 탐색민감성의 실험 절차를 실시하였다. 예비 실험 결과, 측정도구 및 실험절차 상 특별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

본 실험은 2011년 3월~6월까지 이화여자대학교 발달심리관찰실에서 이루어졌으며, 맞벌이 가정의 특성상 주말 시간에 부, 모, 유아가 방문하여 실험이 진행되었다. 실험절차는 아버지와 유아를 대상으로 낮선상황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후 10분의 놀이회기를 통해 아버지의 탐색민감성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대상으로 약 60분간 성인애착면접이 시행되었다.

## 결 과

### 아버지의 애착표상 유형 분포

본 연구의 아버지 애착표상 유형 분포는 표 1에 제시되었다. 유형의 분류는 자율형, 무시형, 물입형, 미해결형의 4범주와, 미해결형을 재분류한

표 1. 아버지의 애착표상 유형 분포

애착표상 유형		단위: 명(%)		
		4범주	3범주	2범주
자율	자율(F)	36 (63.2)	39 (68.5)	36 (63.2)
	무시(Ds)	11 (19.3)	11 (19.3)	
비자율	물입(E)	7 (12.2)	7 (12.2)	21 (36.8)
	미해결(U/d)	3 (5.3)	-	
전	체	57 (100)	57 (100)	57 (100)

표 2.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안정성 유형 분포 단위: 명(%)

애착안정성 유형		4범주	3범주	2범주
안정	안정형(B)	37 (64.9)	38 (66.7)	37 (64.9)
	불안-회피형(A)	9 (15.8)	10 (17.5)	
비안정	불안-저항형(C)	9 (15.8)	9 (15.8)	20 (35.1)
	비조직형(D)	2 (3.5)	-	
전 체		57 (100)	57 (100)	57 (100)

3범주와 자율형과 비자율형(무시형, 몰입형, 미해결형)으로 분류한 2범주로 이루어졌다.

4범주로 분류했을 때 아버지 애착표상 유형은 자율형이 63.2%로 가장 많았으며, 무시형 19.3%, 몰입형 12.2%, 미해결형 5.3%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애착면접의 분류에서 미해결형의 경우 반드시 2차적으로 자율형, 무시형, 몰입형의 3범주 중 가장 적합한 범주로 재분류하도록 하는데, 본 연구의 미해결형 3사례는 상실과 외상 영역에서만 미해결된 언어반응을 보일 뿐 다른 애착관련 주제에서는 개방적이고 응집성있는 담화구조를 보이고 있어 2차분류에서 모두 자율형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3범주 기준으로는 자율형 68.5%, 무시형 19.3%, 몰입형 12.2%로 나타났으며, 2범주

기준으로는 자율형 63.2%, 비자율형 36.8%로 분포되었다.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안정성 유형 분포**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안정성 유형 분포는 표 2에 제시되었다.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안정성을 4범주로 분류하였을 때, 안정형이 64.9%, 불안-회피형이 15.8%, 불안-저항형이 15.8%, 비조직형이 3.5%로 나타났다. 2사례의 비조직형은 재분류 준거에 근거하여 각각 안정형과 불안-회피형으로 재범주화되었다. 따라서 3범주 분류시 안정형이 66.7%, 불안-회피형이 17.5%, 불안-저항형이 15.8%로 나타났다. 안정형과 비안정형의 2범주 분류시 각각 64.9%, 35.1%로 분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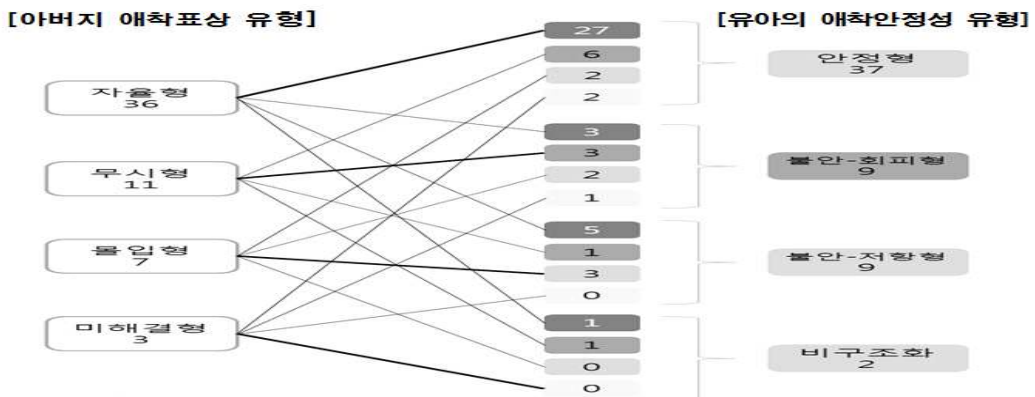


그림 2. 아버지 애착의 세대간 전이

**아버지 애착표상과 유아의 애착안정성 유형간 일치**

아버지의 애착표상 유형과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안정성 유형간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4범주, 3범주, 2범주로 나누어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아버지의 애착표상 유형이 유아의 애착안정성 유형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4범주간 일치율**

아버지의 애착표상 유형과 유아의 애착안정성 유형간 일치율을 4범주로 분류하여 분석한  $\chi^2$  검증결과(표 3)는 유의하지 않았다,  $\chi^2(9) = 11.16, p > .05$  ns.

**3범주간 일치율**

3범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표 4) 아버지의 애착표상 유형과 유아의 애착안정성 유형간 일치율은 64.9%이며,  $\chi^2$  검증결과 유의하였다,  $\chi^2(4) = 10.05, p < .05$ . 그러나 기대 빈도가 5에 미치지 못하는 구간이 반 이상이어서 보다 안정적인 통계 분석을 위해 2범주간 일치율을 추가분석하였다.

**2범주간 일치율**

아버지의 애착표상 유형과 유아의 애착안정성 유형을 각각 2범주로 분류하여 그 일치율을 분석한 결과(표 5), 두 유형간 일치율은 66.7%로  $\chi^2$  검증결과 유의하였다,  $\chi^2(1) = 4.37, p < .05$ . 즉 2범주

표 3. 아버지의 애착표상 유형과 유아의 애착안정성 유형간 일치 (4범주) 단위: 명(%)

유아 애착안정성	아버지 애착표상				전체
	자율(F)	무시(Ds)	몰입(E)	미해결(U/d)	
안정	27 (47.4)	6 (10.5)	2 (3.5)	2 (3.5)	37 (64.9)
불안-회피	3 (5.3)	3 (5.3)	2 (3.5)	1 (1.8)	9 (15.8)
불안-저항	5 (8.8)	1 (1.8)	3 (5.3)	0 (0)	9 (15.8)
비조직	1 (1.8)	1 (1.8)	0 (0)	0 (0)	2 (3.5)
전체	36 (63.2)	11 (19.3)	7 (12.3)	3 (5.3)	57 (100)

$\chi^2(9) = 11.16, p > .05$  (ns)

표 4. 아버지의 애착표상 유형과 유아의 애착안정성 유형간 일치 (3범주) 단위: 명(%)

유아 애착안정성	아버지 애착표상			전체
	자율(F)	무시(Ds)	몰입(E)	
안정	30 (52.6)	6 (10.5)	2 (3.5)	38 (66.7)
불안-회피	4 (7.0)	4 (7.0)	2 (3.5)	10 (17.5)
불안-저항	5 (8.8)	1 (1.8)	3 (5.3)	9 (15.8)
전체	39 (68.4)	11 (19.3)	7 (12.3)	57 (100)

$\chi^2(4) = 10.05, p < .05$

표 5. 아버지의 애착표상 유형과 유아의 애착안정성 유형간 일치 (2범주) 단위: 명(%)

유아 애착안정성	아버지의 애착표상		전체
	자율형	비자율형	
안정	27 (47.4)	10 (17.5)	37 (64.9)
비안정	9 (15.8)	11 (19.3)	20 (35.1)
전체	36 (63.2)	21 (36.8)	57 (100)

$\chi^2(1)=4.37, p < .05$

로 분류시, 아버지 애착의 세대간 전이를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 아버지의 탐색민감성

본 연구의 57사례에서 평가된 아버지 탐색민감성은 평균 5.75, 표준편차 1.97이었다. 아버지 탐색민감성이 아버지의 연령, 학력수준, 소득수준과 관련되는지 상관분석 결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애착표상 유형에 따른 탐색민감성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4범주, 3범주, 2범주 분류에 의해 일원변량분석과 t-test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표 6) 2범주 분류에서만 자율형은 평균 6.22, 비자율형은 평균 4.95로 유의한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t(55)=2.46, p < .05$ . 즉 애착표상이 자율

형인 아버지들은 비자율형 아버지들에 비해 탐색민감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범주에서만 유형집단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본 연구의 경우 사례수가 적어 통계적 검증력이 약화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아버지 애착표상 유형에 따른 아버지 탐색민감성의 평균차이에 대한 효과크기(effect size)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4범주 유형별 집단간 차이의 효과크기는  $\eta^2 = .10$ , 3범주는  $\eta^2 = .09$ 로, 중간이상의 효과크기가 확인되었다. 이는 충분한 사례수가 충족되었을 경우 아버지 애착표상의 4범주와 3범주 분석에서도 통계적 검증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음을 함의한다.

유아의 애착안정성 유형에 따른 탐색민감성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4범주, 3범주, 2범주

표 6. 아버지 애착표상 유형에 따른 아버지 탐색민감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애착표상 유형		4범주	3범주	2범주
자율	자율(F)	6.22 (1.99)	6.15 (1.94)	6.22 (1.99)
	무시(Ds)	4.82 (1.78)	4.82 (1.78)	
비자율	몰입(E)	5.00 (1.92)	5.00 (1.92)	4.95 (1.69)
	미해결(U/d)	5.33 (1.16)	-	
		$F(3,53)=2.00$	$F(2,54)=2.72$	$t(55)=2.46^*$

\* $p < .05$ , ( ) = 표준편차

표 7. 유아의 애착안정성 유형에 따른 아버지 탐색민감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애착안정성 유형		4범주	3범주	2범주
안정	안정형(B)	6.32 (1.94)	6.32 (1.92)	6.32 (1.94)
	불안-회피형(A)	4.56 (2.07)	4.60 (1.96)	
비안정	불안-저항형(C)	4.67 (1.12)	4.67 (1.12)	4.70 (1.56)
	비조직형(D)	5.50 (0.71)	-	
		$F(3,53)=3.49^*$	$F(2,54)=5.37^*$ Duncan: B>C,A	$t(55)=3.22^{**}$

\*  $p < .05$ , \*\*  $p < .01$

분류에 의해 일원변량분석과 t-test를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표 7) 2범주 분류에서 안정형은 평균 6.32, 비안정형은 평균 4.70으로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t(55)=3.22$ ,  $p < .01$ . 즉 안정애착을 형성한 유아의 아버지들은 비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의 아버지들에 비해 탐색민감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역시 유아의 애착안정성 유형에 따른 아버지 탐색민감성의 평균차이에 대한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4범주 유형별 집단간 차이의 효과크기는  $\eta^2 = .16$ , 3범주는  $\eta^2 = .17$ 로, 큰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따라서 충분한 사례수가 확보된다면 유아의 애착안정성의 4범주와 3범주간 비교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아버지 애착의 세대간 전이과정에서 아버지 탐색민감성의 매개효과

아버지의 애착표상이 자녀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안정성으로 나타나는 세대간 전이과정을 아버지의 탐색민감성이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분석을 시행하였다.

매개효과 분석의 1단계로, 아버지의 애착표상이 유아의 애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8) 아버지의 애착표상이 유아의 애착안정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chi^2(1) = 4.32$ ,  $p < .05$ ), 아버지의 애착표상으로 유아의 애착안정성을 옳게 예측할 확률은 66.7%에 이르렀다. 또한 아버지의 애착표상이 자율형일수록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안정성이 안정형

표 8. 유아의 애착안정성에 대한 아버지 애착표상의 로지스틱회귀분석

	B	Wald	유의도	Exp(B)	-2 log likelihood
부_애착표상	1.19	4.20	.04	2.22	69.55

표 9. 아버지의 탐색민감성에 대한 아버지 애착표상의 단순회귀분석

	B	SE	$\beta$	t	$R^2$	F
부_애착표상	1.27	.52	.31	2.46*	.10	6.03*

\*  $p < .05$

표 10.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의 위계적 분석

		B	Wald	유의도	Exp(B)	-2 log likelihood
모형1	부_애착표상	.80	1.61	.21	2.22	62.33
	부_탐색민감성	.47	5.95	.02	1.60	
모형2	부_탐색민감성	.52	7.67	.01	1.68	63.94

표 11. 유아의 애착안정성에 대한 아버지 애착표상의 직접효과 분석

	모형 1	모형 2	차이값( $\chi^2$ )
-2 log likelihood	62.33	63.94	1.61 (ns)

\*  $\chi^2(1)$  분포의 임계치 = 3.84

일 가능성이 2.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분석의 2단계로, 아버지의 애착표상이 아버지의 탐색민감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하고자 단순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표 9) 아버지 애착표상은 아버지의 탐색민감성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beta = .31$ ,  $p < .05$ ), 설명량은 약 10%로 유의하였다,  $F(1,55) = 6.03$ ,  $p < .05$ .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마지막 3단계로, 아버지 탐색민감성의 영향력을 통제된 후에도 아버지의 애착표상이 유아의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변인인 아버지 애착표상과 매개변인인 아버지 탐색민감성의 두 예측변인으로 유아의 애착안정성을 설명하는 모형 1과, 아버지 탐색민감성의 매개변인만으로 유아의 애착안정성을 설명하는 모형 2를 비교하는, 로지스틱 회귀의 위계적 분석(hierarchical analysis) 방법을 시행하였다(표 10).

위계적 분석결과에서 모형 1은 아버지의 애착표상과 아버지 탐색민감성의 두 변인으로 유아의 애착안정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chi^2(2)=11.54$ ,  $p < .01$ ), 모형 2에서는 아버지의 탐색민감성이 유

아의 애착안정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chi^2(1)=9.93$ ,  $p < .01$ . 모형 1에서 두 예측변인으로 유아의 애착안정성을 옳게 예측할 확률은 75.4%이었으며, 모형 2의 예측변인이 유아의 애착안정성을 옳게 예측할 확률은 70.2%로 나타났다.

매개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인의 직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두 모형간의 설명량에 해당되는 -2 log likelihood값의 차이를  $\chi^2$ 검증하였다. 그 결과(표 11), 두 모형간 -2 log likelihood의 차이값은 자유도 1의  $\chi^2$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임계치인 3.84에 미치지 못하여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탐색민감성을 통제했을 때 아버지의 애착표상이 유아의 애착안정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탐색민감성의 완전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애착표상 유형과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안정성 유형을 살펴보고, 아버지의 애착 표상과 유아의 애착안정성의 관계를 아버지의 탐색민감성이 매개한다는 연구 모형

을 검증하고자 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애착표상 유형과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안정성 유형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애착표상 유형은 4범주로 분류되었을 때 자율형이 63.2%로 가장 많았으며, 무시형 19.3%, 몰입형 12.2%, 미해결형 5.3% 순으로 나타났다. 3범주 분류시 자율형 68.5%, 무시형 19.3%, 몰입형 12.2%로 분포되었고, 2범주 분류시 자율형 63.2%, 비자율형 36.8%로 분류되었다. Bakermans-Kranenburg와 van IJzendoorn(2009)의 아버지 AAI 유형을 메타분석한 결과와 비교하면, 본 연구에서는 자율형이 더 많고, 무시형과 미해결형이 다소 적게 나타났다. 이같은 분포 양상은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이 교육수준, 직업군, 소득수준 등에서 중상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속하며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특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안정성을 분류한 결과, 4범주 기준으로 안정형이 64.9%, 불안-회피형 15.8%, 불안-저항형이 15.8%, 비조직형이 3.5%로 나타났다. 3범주 분류시 안정형이 66.7%, 불안-회피형이 17.5%, 불안-저항형이 15.8%이었고 2범주 분류시, 안정형이 64.9%, 비안정형이 35.1%로 분포되었다. Goossens와 van IJzendoorn(1990) 연구에서 안정형이 64%, 불안-회피형이 31%, 불안-저항형이 5%로 불안-회피형과 불안-저항형간 차이가 현저했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불안-회피형과 불안-저항형이 동일한 비율로 분포되어 있었다.

국내 선행 연구인 이영환(1993)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달리 안정형(48%)이 현저하게 낮고, 불안-회피형(38%)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더 빈번한 12~18개월

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년전 연구에 참여했던 아버지들이 양육참여에 다소 소극적인 전통적인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진다.

둘째, 아버지 애착표상이 유아의 애착안정성으로 세대간 전이되는지 살펴본 결과, 4범주 분류를 제외한 3범주 및 2범주 분류 결과 각각 64.9%, 66.7%의 일치율로 모두  $\chi^2$ 검증 결과가 유의하였다. 이러한 일치율은 van IJzendoorn(1995)의 메타분석 결과에 비해 다소 낮기는 하지만 애착의 세대간 전이를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4범주간 일치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본 연구의 전체 사례수가 적어 안정적인 분석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추후 충분한 사례수를 확보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비록 van IJzendoorn(1995)는 아버지 애착의 세대간 전이는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Miljkovitch 등(2004)의 연구에서도 아버지 애착표상과 자녀간의 애착안정성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Bernier와 Miljkovitch (2009)의 연구에서는 주양육자로 기능하는 아버지의 애착표상과 4-6세 아동의 애착표상 간 일치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세대간 전이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를 지지해주는 연구 결과로 유아기 이후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풍부해지는 발달 시기에 아버지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아버지 애착의 세대간 전이가 일어나는 환경적 토대가 됨을 시사한다.

셋째, 아버지 애착표상과 유아의 애착 안정성간 관계에서 아버지 탐색민감성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아버지 애착표상은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아버지의 탐색민감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아버지의 애착표상과 유아의 애착 안정성간 관계를 아버지 탐색민감성이 완전 매개하고 있음을 보

여주었다. van IJzendoorn과 De Wolff(1997)는 메타분석을 통해 아버지의 민감한 양육행동의 매개효과가 어머니에 비해 약하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이는 아버지 상호작용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양육민감성에 기반한 분석 결과로 해석된다. 이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유아와의 관계의 질을 잘 반영하고 어머니와의 관계성과 차별화되는 상호작용 특성인, 놀이상황에서의 탐색민감성 변인을 적용함으로써 아버지 애착의 세대간 전이에서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버지 애착의 세대간 전이과정에서 탐색민감성이 매개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자율형의 애착표상을 형성할수록 자녀의 탐색을 격려하고 민감하게 반응해 주는 아버지의 반응적 행동이 증가하며, 자녀는 아버지에 대해 안정형의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반대로 아버지가 비자율형의 애착표상을 형성할수록 자녀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버지의 상호작용 행동은 감소하고 결국 자녀는 아버지에 대해 불안정형의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탐색민감성의 완전매개효과와 또 다른 측면은 실제 자녀의 애착안정성 형성에 아버지 탐색민감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즉 아버지의 애착표상이 유아의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탐색민감성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 직접적인 영향력은 상실된다. 그렇다면 비록 아버지가 과거 애착경험을 통해 비자율형의 애착표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현재 아버지의 탐색민감성을 높임으로써 자녀가 안정애착을 형성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애착의 세대간 비전이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진다. 즉 아버지가 원가족과 관계에서 부정적인 애착경험을 지니고 있더라도, 현재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아동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침입적이지

않은 적절한 지도를 통해 새로운 탐색을 격려하는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 탐색민감성의 세대간 전이에서의 완전매개효과는 유아의 안정애착 형성을 위한 부모 교육프로그램이나 치료개입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아버지 요인 중 탐색민감성이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의 의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애착면접, 낯선상황절차 등의 전통적인 애착실험 방법을 사용하여 아버지 애착의 세대간 전이를 입증하였다. Bowlby가 애착이론을 제기한 이래로 수많은 애착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정작 아버지에 대한 애착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었을 뿐 아니라 기존의 대다수 아버지 연구들이 간단한 자기보고식 설문방법에 의존한 것에 비해 직접적인 관찰과 실험을 통해 아버지 애착의 세대간 전이 과정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애착연구에 있어 어머니와 구별되는 아버지의 고유한 특성인 탐색민감성 개념을 검증하였다. 종래 어머니 중심 애착연구에서 사용되던 양육민감성의 경우 영아주도적 상호작용에 대한 반응의 적절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이는 아버지 대상연구와 영아기를 벗어난 유아기 애착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양방향적인 상호작용 특성이 반영된 탐색민감성으로 아버지-유아의 상호작용 특성을 관찰한 결과 탐색민감성이 아버지 애착의 세대간 전이 과정을 매개함을 밝힘으로써 아버지 애착표상과 탐색민감성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주었다. 나아가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안정성이 탐색민감성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부모교육 및 치료개입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실제적인 함의를 갖는다. 이는 아버지가 비자율형의 애착표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탐색민감성을 증진시키는 개입이 이

루어진다면서 자녀는 안정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하여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 연구의 특성상 대규모 표집이 어려웠고 연구 사례수가 충분치 못하여 다양한 통계적 분석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더구나 맞벌이 가정 중심으로 대상으로 표집하는 과정에서 자녀양육에 적극적인 아버지들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다양한 계층의 아버지 집단에 일반화시키는 데는 다소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를 둘러싼 중요한 생태학적 변인이 함께 검토되지 못하였다. 즉 결혼만족도, 일-가정 역할 갈등, 양육 신념, 공동양육, 실질적 아버지의 개입시간과 공유 활동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전체적인 생태학적 틀에서 아버지 애착의 세대간 전이와 자녀의 발달결과와의 연관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후속 연구에서 어머니의 애착표상, 어머니의 탐색민감성,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안정성 등의 변인을 통해 어머니-유아간 애착의 세대간 전이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아버지 연구결과와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어머니관련 변인을 아버지관련 변인과 함께 대칭적으로 분석한다면 유아의 애착 발달에 대한 통합적 가족체계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 고 문 헌

우복례 (2003). 애착문제/장애 아동 어머니와 비임상 아동 어머니의 양육경험 내적실행 모델 차이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경숙, 신의진, 김혜연 (1999). 아동의 정신병리

와 어머니의 성인애착 표상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2(1), 103-115.

이경숙, 엄혜련, 정영운 (2004). 잠재된 비행청소년의 애착유형에 따른 아동기 양육경험과 문제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511-532.

이미선, 이경숙, 박진아, 신의진 (2008). 불안장애 아동의 애착유형과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및 애착표상. 재활심리연구, 15(1), 33-51.

이영환 (1993). 낮은 상황에서의 영아의 아버지애 대한 애착 유형.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장미자 (1998). 애착의 세대간 전이.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정미현 (2010). 청소년 미혼모, 위험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양육경험 차이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채진영 (2009). 아버지의 애착표상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애착 표상 및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최혜훈 (1997). 영아의 애착 유형과 성인의 애착 표상 유형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Ainsworth, M. S. (1963). The development of infant-mother interaction among the Ganda. In B. M. Foss (Ed), *The determinants of infant behaviour*, (pp.67-112). London: Methuen.

Ainsworth, M. S. (1967). *Infancy in Uganda: infant care and the growth of love*. Oxford, England: Johns Hopkins Press.

Ainsworth, M. S., & Wittig, B. A. (1969). Attachment and the exploratory behaviour of one-year-old in a strange situation.

- Determinants of infant behaviour*, 4, 113-136.
- Ainsworth, M.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Bakermans-Kranenburg, M. J., & van IJzendoorn, M. H. (2009). The first 10,000 Adult Attachment Interviews: Distributions of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s in non-clinical and clinical groups.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11, 223-263.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lsky, J. (1983). *Father-infant interaction and security of attachment: No relationship*. Unpublished manuscript,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at University Park.
- Belsky, J., & Rovine, M.J. (1988). Nonmaternal care in the first year of life and the security of infant-pare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9, 157-167.
- Bernier, A., & Miljkovitch, R. (2009).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attachment in father-child dyads: the case of single parenthood.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70(1), 31-51.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Retrospect and prospe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2(4), 664 - 678.
- Bretherton, I. (2010). Fathers in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a review.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0(1-2), 9-23.
- Bretherton, I., Ridgeway, D., & Cassidy, J. (1990). Assessing internal working models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 An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for 3-year-olds. In M.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pp. 273-308).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rown, G. L., McBride, B. A., Shin, N., & Bost, K. K. (2007). Parenting predictors of father-child attachment security: Interactive effects of father involvement and fathering quality. *Men's Studies Press*, 3(3), 197-219.
- Cox, M. J., Owen M. T., Henderson, V. K., & Margand, N. A. (1992). Prediction of infant-father and infant-mother attach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8(3), 474-483.
- Fonagy, P., Steele, H., & Steele, M. (1991). Maternal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during pregnancy predicts the organization of infant-mother attachment at one year of age. *Child Development*, 62(5), 891-905.
- Goossens, F. A., & van IJzendoorn, M. H. (1990). Quality of infants' attachments to professional caregivers: Relation to infant parent attachment and day care characteristics. *Child Development*, 61, 832 - 837.
- Grice, H.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 P. Cole, & J. L.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Vol. 3: *Speech acts*. pp. 41-58). New York: Academic Press.
- Grossmann, K., & Grossmann, K. E. (1992). Newborn behavior, the quality of early parenting and later toddler-parent relationships in a group of German infants. In J. K. Nugent, B. M. Lester, & T. B. Brazelton (Eds.), *The cultural context of infancy*(pp. 3-38). Norwood, NJ: Ablex.
- Grossmann, K., Grossmann, K. E., Fremmer-Bombik, E., Kindler, H., Scheuerer-Englisch, H., & Zimmermann, P. (2002). The uniqueness of the child - father attachment relationship: Fathers' sensitive and challenging play as a pivotal variable in a 16 year longitudinal study. *Social Development, 11*, 301 - 337.
- Hazan, C., & Shaver, P. (1992). Broken attachment, In T. L. Orbuch (Ed.), *Close relationship Loss: Theoretical approaches*, New York: Springer-Verlag.
- Kassubek, B. (1995). Parental quality of mediating play and play behavior of their two-year-old children: Longitudinal relations. Diplomarbeit. University Regensburg.
- Lamb, M. E. (1975). Fathers: Forgotten Contributors to Child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18*(4), 245-266.
- Lamb, M. E. (1976). Interaction between two-year-olds and their mothers and fathers. *Psychological Reports, 38*, 447-450.
- Lamb, M. E. (1977). Father-infant and mother-infant interaction in the first year of life. *Child development, 48*(1), 167-181.
- Lamb, M. E. (1997). Fathers and child development: An introductory overview and guide.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third edition, pp. 1-18, 309-313). New York: Wiley.
- Lamb, M. E., Pleck, J. H., Charnov, E. L., & Levine, J. A. (1985). Paternal behavior in humans. *American Zoologist, 25*(3), 883-894.
- Main, M., &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66-104.
- Main, M., & Solomon, J. (1990). Procedures for identifying infants as disorganized/disoriented during the Ainsworth Strange Situation.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pp. 121-16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in, M., & Weston, D. R. (1981). The quality of the toddler's relationship to mother and to father: Related to conflict behavior and the readiness to establish new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52*(3), 932-940.
- Main, M., Goldwyn, R., & Hesse, E. (2002). Adult Attachment Scoring and Classification System.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McDonald, K., & Parke, R. D. (1984). Bridging the gap: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4), 1267-1277.
- Miljkovitch, R., Pierrehumbert, B., Bretherton, L., & Halfon, O. (2004).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and child attachment representations.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6*, 305-325.
- Owen, M.T., Easterbrooks, M.A., Chase-Lansdale, L., & Goldberg, W.A. (1984) The relation between maternal employment status and the stability of attachments to mother and to father. *Child Development, 55*, 1894-1901.
- Palmer, S. A. (1993). Infant-mother and infant-father interactions during caregiving and play: Effects on cognitive and emotional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 Parke, R. D. (1990). In search of fathers: A narrative of an empirical journey. In G. H. Brody & I. C. Sigel (Eds.), *Methods of family research: Vol. 1. Normal families* (pp. 153-188). Hillsdale, NJ: Erlbaum.
- Pederson, D. R., Gleason, K. E., Moran, G., & Bento, S. (1998). Maternal attachment representations, maternal sensitivity, and the infant-mother attachment relation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34*, 925-933.
- Schwartzman, H. B. (1986). A cross-cultural perspective on child-structured play activities and materials. In A. W. Gottfried & C. C. Brown (Eds.), *Play interactions: The contribution of play materials and parental involvement to children's development* (pp. 13-29).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 Spangler, G., & Grossmann, K. E. (1993). Biobehavioral organization in securely and insecurely attached infants. *Child Development, 64*(5), 1439-1450.
- Steele, H., Steele, M., & Fonagy, P. (1996). Associations among attachment classifications of mothers, fathers, and their infants. *Child Development, 67*, 541-555.
- van IJzendoorn, M. H. (1995).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s, parental responsiveness, and infant attachment: A meta-analysis on the predictive validity of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7*, 1-17.
- van IJzendoorn, M. H., & De Wolff, M. S. (1997). In search of the absent father—meta-analyses of infant-father attachment: A rejoinder to our discussants. *Child Development, 68*, 604-609.
- van IJzendoorn, M. H., Sagi, A., & Lambermon, M.W.E (1992). The multiple caretaker paradox: Data from Holland and Israel. *New Directions in Child Development, 37*, 5-24.
- Verschueren, K., & Marcoen, A. (1999). Representation of self and socioemotional competence in kindergartners: Differential and combined effects of attachment to mother and to father. *Child Development, 70*(1), 1-11.

70(1), 183 - 201.  
Volling, B. L., & Belsky, J. (1992). Infant, father, and marital antecedents of infant father attachment security in dual-earner and single-earner famil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5*(1), 83-100.  
Yogman, M. W. (1994). Observations on the

father - infant relationship. In S. Cath, A. Gurwitt, & J. Ross (Eds.), *Father and child: Developmental and clinical perspectives* (pp. 101-122). Boston: Little Brown.

---

1차 원고 접수: 2012. 04. 15  
수정 원고 접수: 2012. 05. 20  
최종게재결정: 2012. 05. 21

#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aternal attachment: Mediation Effect of paternal exploratory sensitivity

Jeung Ok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Seoul Cyber University

Hee-Jeong Bang

Dep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aternal attachment and mediation effect of paternal exploratory sensitivity in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57 pairs of fathers and 24-month toddlers from dual-earner familie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dult Attachment Interview (AAI) and Stranger Situation Procedure (SSP) were administrated to classify paternal attachment representation and toddlers' attachment security. Also, ten-minute play session was included to assess paternal exploratory sensitivity to their childre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examining paternal attachment representations through AAI, autonomous type(F) occupied the largest portion by 63.2%, followed by 19.3% with dismissing type(D), 12.2% with preoccupied type(E), and 5.3% with unresolved type(U/d). Conducting SSP to find toddlers' attachment security to their father, results showed that 64.9% were classified as secure type(B), 15.8% as anxious-avoidant type(A), 15.8% as anxious-resistant type(C), and 3.5% as disorganized type(D). Second, the concordance of paternal attachment representation and toddlers' attachment security of four-way classification was 58%, not significant in  $\chi^2$ test. But the concordance of three-way classification and two-way classification were both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chi^2$ test (64.9%, 66.7% respectively). Third, the direct effect of paternal attachment representation on toddlers' attachment security was not significant when paternal exploratory sensitivity was controlled. This proved that paternal exploratory sensitivity fully mediated between paternal attachment representation and toddlers' attachment security.

*Keywords: paternal attachment, exploratory sensitivity, paternal attachment representation, toddlers' attachment security,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attachment*